

##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3년 2월 발행 (제 34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  
목차:

◎권두 메시지 '되살아나는 짐승의 나라 미국' 예레미야

◎간증 '교회를 망치는 목사와 교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E3

◎알림 코너 '요한계시록 세미나'

-----  
<권두 메시지>

### “되살아나는 짐승의 나라 미국” by 예레미야

오늘은 "되살아나는 짐승의 나라 미국"으로, 짐승의 나라인 미국이 이 후 큰 전쟁으로 파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시 후 기적으로 회복한 후 세계 제국으로 전 세계에 군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싶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이야말로 종말의 핵심 국가이다>

미국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등 진지한 얼굴로 말한다 기독교도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전혀 실수입니다. 미국 이야말로 성경이 평소부터 그 출현을 예언하고 국가이며, 이 나라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종말의 모든 사건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나라는 살해됨과 같은 상처를 얻을 것이다

짐승의 나라 미국이 살해 된 것으로 생각되는 같은 상처를 얻을 것은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에는 7 개의 머리 중 하나 인 미국이 살해되는 구체적으로는 전쟁의 재앙에 의해 파괴하여 다시 부흥하는 것 등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상처, 재해 피해를 받을 수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치명적인 상처도 치유되었다." 즉 놀라운 속도로 그 불황에서 미국이 부흥하는 것도 기재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보았다 "온 땅", 즉 전 세계 국가는 다음이 부활 한 미국의 지배 강권에 복종하게 될 수도 기재되어있는 것입니다.

흘리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미국의 전쟁으로 인한 불황, 부활 사건이 앞으로의 종말의 시대에 생명 점, 분기점이 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9.11 테러는 이러한 형태인가>

내가 알기로는 2001 년 9 월 11 일, 즉 21 세기에 들어간 그 해에 일어난 미국의 이른바 911 테러는 앞으로 일어날 미국의 불황과 부활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바뀌었다고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잔학 한 테러를 받았다고 강변하는 미국에 의해 이슬람 국가들은 공격 이라크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911 테러는 미국의 타국 공격의 그럴듯한 구실로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테러에서 자위 때문 "이라고 칭하고, 언론 규제를 또한 메일이나 개인 정보가 정부에 의해 감시되는 있게 되었습니다. 911 테러는 미국의 언론 탄압과 개인 정보 파악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공공의 구실이 모든 불합리한 미국의 규제를 정당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형태로 이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일어날 미국의 전쟁으로 인한 재앙은 이후 미국이 군사적으로 부활한 후 이 나라가 세계를 군사 지배하는 그럴듯한 구실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전쟁의 재앙에 의해 치명적인 피해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2 번과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로, 미국에 의한 세계 지배는 "정당화된다"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도 치유했다. 그래서 전체 땅은 놀라 그 짐승 따라 "와 종말의 묘사는 바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미국에 의한 전 세계 지배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열 뿔의 부활>

미국이 전쟁에서 괴멸 후 부활하는 등 얘기를 갑자기 내 보내면 마치 SF 세계의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의 깊게 읽는다면 성경의 기사는 이 종말의 짐승의 부활을 암시하는 듯한 설명이 밖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기에 종말의 날 짐승의 나라 10 뿔 대해 쓰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이 부분은 "이 나라에서 서십 명의 왕"으로 아무런 특색도 없는 것입니다 만, 그러나, 그리스어 70 명 번역으로 읽고, 여기에는 "이 나라에서 (부활 하는) 열 명의 왕 '으로 부활 아나스타샤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그 전제 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종말의 짐승의 나라,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의 나라가 한번 죽는 눈에 만날 수 있지만 기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그림자 정부를 지하에 있다>

흘리는 것처럼 성경의 어떤 부분은 분명히 미국의 괴멸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미국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사실 미국은 그날 핵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일을 상정 한 것처럼 이미 그 지하에 그림자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기사가 이를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하 비밀 군사 기지

<인용 시작>

그림자의 지하 정부 :

핵 테러 공격에 대비 발족 미국 대통령 인정 [마이니치 신문 2002 년 3 월 2 일]

[워싱턴 사토 치야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핵 테러 공격에 대비하여 수도 워싱턴에서 떨어진 동해안 벙커에 공무원 100 여명을 교대제로 근무하는 '그림자 지하 정부 "기밀로 발족시켜 운영을 계속 있는 것이 1 일 밝혔다. 이 날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 한 여러 정부 소식통이 확인하고 대통령도 "우리는 정부의

연속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 지하 정부는 '그림자 거버먼트 "(그림자 정부)로 불린다. 옛 소련의 핵 공격 위협이 냉전 시대에도 같은 계획이 있었지만, 실시 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는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휴대 가능한 핵무기를 입수 핵 공격을 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전 부처에서 총 75 ~ 150 명의 정부 당국자가 선정되어 산 중턱에 있는 2 개소의 벙커 같은 장소에 발전기, 전화, 컴퓨터 등을 반입 해 90 일 교대로 24 시간 태세로 숙식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발설 금지, 가족과 친구들은 무료이나 전환 전화로 연락 시스템이 있다.

알카에다가 핵무기를 입수했다는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측근에 따르면 대통령은 그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지하 정부는 긴급 미국 국민의 식량, 식수를 비축 · 공급하는 것 외에 교통, 에너지, 통신의 유지 등을 담당한다.

최악의 경우로는 워싱턴이 핵 공격을 받고 파괴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 된 후 체니 부통령이 지하 정부를 운영하는 시나리오가 상정되고 있다고 한다.

<인용 끝>

왜 미국은 지하에 그림자 정부 기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명목적인 이유는 테러에 대비해 있다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상술 한 것처럼 다가올 그날 전쟁 재해의 날 전부터 갖춘, 그리고 비록 미국 전역을 핵 공격도, 게다가 부활 할 그날을 위해 갖추고있다 이러한 에 생각됩니다.

왜 지하에 정부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다가올 핵전쟁의 날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폭탄을 사용하더라도 지하에 잠수하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핵 공격을 받아도 1 주일 정도하면 핵 낙진의 영향은 반감 때문에 그 동안 지하에 숨어있는 경우 하면 무사히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진심으로 그 일을 상정하고 그 날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국의 지하 군사 기지>

또한 미국에는 지하 정부뿐만 아니라 지하 1 마일 깊이의 위치에 비밀리에 지하 기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행기, 심지어 군함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요 도시는 지하에 둘러 쳐져 교통망을 통해 왕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웬지 동화 같지만 이러한 지하 기지의 현상을 촬영 한 유튜브가 많은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Underground base 등의 용어를 검색하여보십시오.

## <7 번째이자, 8 번째 머리인 미국>

이는 미국이 일단 빈사의 증상을 입어, 게다가 부활하는 것을 계시록 17 장에는 다음의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에는 옛날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짐승인 미국에 대해 그것은 "먼저 7 명 중 한 명"이며, 더욱이 "8 번째"도 있음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미국이 왜 7 번째이며, 게다가 8 번째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이 것을 생각 톱으로 몇 기밀 학 (게마토리아)의 관점에서, 8 이라는 숫자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주 예수 일주일의 첫날, 즉 8 번째 날에 부활되었습니다. 8 성경으로 부활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8 번째 왕, 즉 일곱 번째 왕 미국이 부활 한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활을 분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두 나라로 성경에 묘사되어있는 것입니다.

7 번째 왕 : 전쟁의 재해 부활 이전 현재 미국, 아직 열 뿔을 가지지 않는다.

8 번째 왕; 전쟁 재해 후 부활하는 미국.

열 뿔을 가지고있다.

## <그 재앙의 날에 음녀 바벨론 배교의 미국 그리스도 교회는 멸망>

미국이 전쟁에 의해 멸망, 그리고 썩습니다 만,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것은 상상 다니 무서운 일입니다. 그날에 대해 성경은 음녀 바벨론이 불에 타는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18:9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8:10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미국이 핵 전쟁으로 공격하는 일, 그것은 911 테러처럼 미리 준비된 해줘서 전쟁이므로, 이 나라의 주요했던 사람들은 지하에 도망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날 또한 평소부터 계시록에 음녀 바벨론의 심판으로 예언 된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기록 된 바벨론이 하루 중 불에 구워진다는 말은 옛 날에는 불가능한 일 이었지만, 핵 미사일이 사용되는 오늘날 매우 있을 수 있음 폐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님은 차치하고, 눈의 열린 기독교인은 이해해야 합니다.



지하 기지 건설을 위한 거대한 굴착기

하나님은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악령 부흥회와 레프트 비하인드로 상징되는 사기 종말 교리 환난 전 휴거 설 등의 요타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용인하고있는 것도 아니고, 중, 미국의 배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2000 년 전에 쓰여진 요한 계시록에서 예언하신 것임을 알아야 것입니다.

### <부활 후 미국은 짐승의 본성을 노출하다>

미국이 그 짐승로서의 본성을 발휘하는 것은 부활 후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그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

**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부분에서 미국에 온 땅이 공포를 품고, 이 짐승 국가에 따라 특히 군사력에 우려를 안고 "누가 이 짐승보다 있자. 누가 이것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 열 별을 가진 경우, 즉 이 나라가 8 번째 머리로 부활 한 후에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다음과 같이 42 개월, 즉 3 년 반 환난 시대도 제공합니다.

**13: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그리고 그 환난 시대는 전 세계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배는 전 세계에 걸친 때문입니다. 이전 호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자를 미워하는 풍조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그 본성을 드러내는 날, 8 번째 왕으로 부활하는 날에 점점 가속 전세계 올바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실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보호 약속되어 있는지 알아 봅시다.

**13: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언제 지나 환란 전 휴거 라든가 유럽이 짐승의 나라 다의 종말의 바보 같은 외경을 듣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대로 시간을 구별 짐승의 나라를 구별 갑시다.

-이상-



군함도 수용 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기지

### '교회를 망치는 목사와 교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E3

---

일단 예레미야 목사가 수 차례 "교사에게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되어 있었는지 생각 합니다만, 최근에 다시 그 일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생각 했으므로, 이야기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말씀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인용 부분은 토요일 제자의 행보의 추천 때 배운 것입니다.

#### **참조 예레미야 12:10**

#### **12:10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훼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듣고 놀랄지도 모르지만 많은 목자가 '포도밭' 즉 "교회"를 망치는 것을 상기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목사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목사와 교사가 "재앙"이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재앙"이 될 목사와 교사의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까.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환난 통하지 않고 휴거된다"라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할 나위없이 행복한 때" 혹은 "심판하는 것은 불신자 만"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메신저입니다. 또한 비유 의미와 말씀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만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 말하지 않는 메신저 역시 "하나님 앞에 재앙이 될 목사와 교사"로 간주됩니다.



"화"라는 말에 대해 문득 생각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가증"의 점은 KJV 역은 "재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화"와 같은 의미입니다.

### 참조 누가복음 11:42

**11:42 ○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말하는 목사와 교사의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적인 존재라고도 말할 사람들도 알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명확하게 "위선"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공" 즉 "심판"(KJV 역)의 것을 소홀히했기 때문입니다. 내 상상인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말하고 있었다 메시지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승!"라고 그런 개념에 기반 메시지 만이 전해지고 있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심판"과 "회개"에 대한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전 '공'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다 고 생각 합니다만, 헌금은 제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헌금도 하나님의 사랑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해야 한다"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이 것을 빼 메시지를 해도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또한 "위선"라는 말에 관련하여 성경의 곳곳에 "거짓 사도"나 "거짓 형제"나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가짜」의 부분은 KJV 역은 "실수"라는 식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잘못 전하는 목사와 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지방 학교에 들어가 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교사는 그 사람이 희망 한 학교에 어떻게 든 합격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1 + 6 = "7"$ 의 결과, "10"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일사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완전히 다른 것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론 "불합격"이군요.

또한 의뢰 한 사람은 다시는 그 교사는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일에 비해 괜찮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나 교사들도 이러한 일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실수 한 것만을 가르쳐 나갈 때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의 사람들까지도 "하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앞의 예제는 세상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가 있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 고려하면 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반복 말했다 왔습니다 같이 영생 내용은 "한번의 기회" 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상에서 사는 동안 거짓 (실수) 교사에서 잘못된 교리를 계속 받고 나갈 때 전혀 다른 방향을 걷고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가 환란 전 휴거 설을 장려하여 아마도 신도 분들은 환난을 향한 준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제자로 살도록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것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계속 무리의 행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도달하는 곳은 "영생"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인 것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사와 교사가 재앙이 될 것 같은 것만을 말했다가는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고, 최악 주님의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참조 마태복음 23:13,15**

**23:13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15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밑줄 친 부분에 주목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만약 그런 일을 앞으로도 계속 계속한다면, 자신이 목회되는 신도 사람까지도 영원한 형벌에 와 길동무로 해 버리는 것을 여기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 으면이 말씀은 교사 나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라든지 "위선"라는 목사와 교사에 붙어가는 때 신도의 사람들 역시 심판에 이르지 대해 말하고 갈라져있는 것입니다. 잘난 말투로 매우 황송합니다만,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 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내 착각해 야하지만 지금의 기독교 교회와 목사와 교사의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재앙"이되고있는 사람들이 많지? 또는 그렇게 들어도 이야기 절반으로는 그런 바람에 대해 우려를 안고 계시는 분은 별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라고 생각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란다 만, 만약 그렇다고 하시면... 대중은 차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선"라든지 "화"라고 말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꼭 회개 (방향 전환)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다 "교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이 된다"는 것은 지금의 종말의 시대 바로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이에 관하여 이전 예레미야 목사가 반복하여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꼭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빕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이상-



위선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